



박람회 유치 깃발 달고... 2012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홍보위원회 위촉된 여수지역 교통봉사대 회원 150명이 7일 진남체육관을 출발해 시민회관~한재타널~종회동 해양공원까지 박람회 흥보 깃발을 부착하고 카 퍼레이드를 벌였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동천 강변로 3단계 개설공사 부실”

순천 경실련 “설계·감리·시공 업체 책임 물어야”

순천시가 시공한 오천동 순천만 입구 동천길 부분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가 부실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는 2002년 5월 순천만을 찾는 관광 차량 및 하수종말처리장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강변로 3단계 공사에着手, 지난 8월 도로(3천80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완공된 보도 폭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최소 1.2m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시설물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돼 있어 2인이 정상적으로 교행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순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부실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하천 제방 쪽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 포장 공사를 실시하면 통행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혼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

12일 여수서 30개팀 참가

제2회 거북선기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가 전국 30개팀 2천여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2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와 국민생활체육여수시특공무술연합회가 주최·주

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겨루기와 호신술, 격파 등 9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된다.

국민생활여수시특공무술연합회 관계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특공무술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라며 “특공무술인들이 자비를 들여 개최한 대회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 중학교 신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먼거리 학교를 다니야 하는 불편을 겪게 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 지역은 90년대 이후 신도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덕연동과 왕조1·2동을 중심으로 거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신도심 지역 가운데 왕조2동에만 집중적으로 중학교가 세워져 나머지 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왕조 2동의 경우 최근 10년동안 신흥종과 금당·팔마·왕의 등 4개 중학교가

개교했으나 왕조 1동은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 구도심지역인 석현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바람에 왕조 1동지역 중학교 신설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신도심 지역내 중학교 신설이 암극화되고 있는 것은 왕조 2동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로 학교부지 확보가 의무적으로 이뤄진 반면 개별 아파트 위주로 인구가 유입된 왕조 1동은 학교부지가 미처 확보되지 못한 때문이다.

순천교육청은 뒤늦게 왕조 1동인 법원 뒷편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했으나 현재 순천 지역 중학교 신입생 모집 정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정원보다 많아 중학교 신설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구도심권의 급격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 구도심지역인 석현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바람에 왕조 1동지역 중학교 신설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되고 있다.

왕조 1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왕조 2동의 경우 불과 몇 m를 사이에 두고 중학교가 세워졌으나 나머지 신도심 지역 대다수 학생들은 먼 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며 “부계획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바람에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순천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중학교 정원이 남아돌고 있는데다 교육부가 저출산을 우려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덕연동 노인의 날 큰잔치



‘2006 순천시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제 10 회 노인의 날 큰 잔치가 지난 3일 순천교육청 인근 공원에서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로 진행됐으며 주민자치센터 동영상 및 문화교실 발표회, 주민화합 노래자랑 등 1년 동안의 주민자치센터 성과를 평가하는 장이 마련됐다.

덕연동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소외 어린이 300여명 결연

여수시 공직자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어린이 30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는다.

여수시는 본청 및 산하 사업소 공무원들이 소년소녀가장과 시설보호어린이 등 소외계층 어린이 300여명과 자매결연을 맺는 ‘천사(1004)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한다. ‘천사 자매결연’ 1단계는 시장 환경복지국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이를 어린이들과 1대1 지정결연을 맺고 5개 이상 공무원과 희망 공무원 등 전 직원으로 확대된다. 2단계는 사회 각계 주요인사나 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시설보호 어린이까지 결연을 확대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시가 시공한 오천동 순천만 입구

동천길 부분 강변로 3단계 개설 공사가 부실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시는 2002년 5월 순천만을 찾는 관광 차량 및 하수종말처리장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강변로 3단계 공사에着手, 지난 8월 도로(3천80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완공된 보도 폭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최소 1.2m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 시설물들이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돼 있어 2인이 정상적으로 교행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순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부실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설계, 감리, 시공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공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하천 제방 쪽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 포장 공사를 실시하면 통행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혼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겨루기와 호신술, 격파 등 9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된다.

국민생활여수시특공무술연합회 관계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특공무술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라며 “특공무술인들이 자비를 들여 개최한 대회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제2회 거북선기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가 전국 30개팀 2천여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2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사)국제특공무술연합회와 국민생활체육여수시특공무술연합회가 주최·주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순천 교육청 관계자는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남 제일의 둘(洞)’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열게됐다”고 말했다.